

손진태 『조선민담집』 연구

- 설화의 성격과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

권혁래*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조선민담집』의 수록 작품과 분류 체계 |
| 2. 1920년대 손진태의 학문과정과 설화 채록 | 4. 수록 작품의 재분류와 성격 |
| | 5. 맺음말 |

국문초록

손진태의 『조선민담집』은 1920년대 설화를 집성한 설화집으로 연구사적 가치가 큰데, 지금까지 본격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먼저 설화 채록방식 및 수록작품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설화 분류체계와 실제 분류작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분류체계를 가지고 수록 작품들을 재분류하였다.

손진태가 1930년 간행한 『조선민담집』에는 1920년부터 1930년까지 채록된 조선의 민간설화 154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설화집은 설화 채록의 초창기인 1920년대에 조선의 설화를 가장 폭넓게, 그리고 원형 그대로

* 용인대 교육대학원 교수

채록·집성한 설화집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미가 크다.

손진태는 수록 작품 154편을 ‘신화·전설류’(51편), ‘민속·신앙 관련 설화’(33편), ‘우화·돈지설화·소화’(47편), ‘기타 민담’(23편)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손진태의 분류는 신화, 전설, 설화, 우화, 돈지설화, 소화, 민담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개념의 혼란을 일으키며, 유형 간 변별성도 분명치 않다. 이에 필자는 조희웅의 설화 분류법에 의거하여 재분류하였는데, 그 결과 신이담 78편, 소담 44편, 일반담 19편, 동식물담 9편, 형식담 4편 순으로 분류되었다.

신이담에서는 창세신화, 거인설화, 대홍수설화 등 신화의 세계가 주목된다. 신화에는 창세신화를 비롯하여 인류의 탄생, 조선 산천의 유래 등을 이야기한 것이 많다. 소담은 조선인들의 발달한 기상과 재치를 드러내는 작품이 많고, 그 외에 민중들의 해학과 풍자의 정신을 보여주는 과장담, 우행담 등이 있다. 일반담에는 전설이나 지역에 관한 기원담과 효일화를 담은 교훈담 등이 있는데, 이에는 손진태의 민속학적 관심이 투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손진태는 민중들의 발달하고 대담한 상상력, 풍자와 해학의 정신, 민속의 양태 등이 나타난 설화들을 채록·집성함으로써 조선 민간설화의 민족적·문화적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주제어 : 조선민담집, 민간설화, 손진태, 창세신화, 조희웅

1. 머리말

설화 연구에서 채록된 자료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채록 자료집은 연구자의 시각과 공력이 집약된 결과물이며, 설화 연구는 자료를 떠나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구비전승되어 오던 조선의 설화는 19세기 말 외국인 연구자들에 의해 채록·기록되기 시작하였다. 러

시아 작가 가린(N.G. Garin)의 『조선설화』(1898)¹⁾, 일본인 기자 출신의 우스다 잔운(薄田斬雲)의 『朝鮮叢話』(1908)²⁾,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朝鮮物語集』(1910), 미와 다마키(三輪環)의 『傳説の朝鮮』(1919), 조선총독부의 『朝鮮童話集』(1924)³⁾ 등이 그 결과물이다. 조선인 연구자가 직접 조선의 설화를 채록하여 출판한 것은 1926년 심의린의 『朝鮮童話大集』을 시작으로, 1927년 정인섭의 『溫突夜話』, 1930년 손진태의 『朝鮮民譚集』 등으로 이어졌다. 설화 연구를 하면서 근대 초기의 자료집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초기 설화 자료집에 한국 설화의 가장 초기 자료가 보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 연구자들의 자료집은 일선동조론 및 식민사관의 혐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대로 가려 읽어낼 필요가 있다. 이와 대비하여 조선인이 편찬한 『朝鮮童話大集』, 『溫突夜話』, 『朝鮮民譚集』 등은 일본인 연구자들이 편찬한 것과는 관점과 내용, 의미가 확연히 다르며, 연구자들은 그 차별되는 내용 및 성격을 좀더 적극적으로 읽어내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근래 이러한 관심사에서 연구자들이 근대 초기 설화집·동화집 자료를 발굴·연구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 논문에서 손진태의 『조선민담집』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조선민담집』은 일본어로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 한국의 설화를 연구하면서 이 설화집을 빼놓고서는 그 시작을 논하기 힘들 것이다.

『조선민담집』에는 1920년부터 1930년까지 채록된 조선의 민간설화 154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1930년 12월 日本 東京의 郷土研究社에

-
- 1) 가린의 『조선설화』의 번역과 연구논문은 다음의 논저를 참조할 것. 안상훈 역, 『조선설화』, 한국학술정보, 2006; 전성희, 「러시아에서 최초로 번역·출판된 『한국설화』의 성격과 특징」, 『한국민속학』 40-1, 한국민속학회, 2008; 강재철, 「N.G. 가린의 개화기 한국설화자료의 수집과 채록방법」, 『한국설화문학의 탐구』, 단국대 출판부, 2009.
 - 2) 김광식, 「우스다 잔운(薄田斬雲)과 한국설화집 『조선총화』에 대한 연구」, 『동화와 번역』 20,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10.
 - 3) 권혁래 역저, 『조선동화집』, 집문당, 2003.

서 간행되었으며, 표기문자는 일본어이다. 손진태의 『조선민담집』은 설화 채록의 초창기인 1920년대에 조선의 설화를 가장 폭넓게, 그리고 원형 그대로 채록·집성한 설화집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미가 크다. 이 책은 1968년 일본 岩崎美術社에서 『朝鮮の民話』라는 제목으로 복간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에 김헌선·강혜정·이경애와 최인학에 의해 각각 번역 출간된 바 있다.⁴⁾ 최인학은 『조선민담집』에는 민담뿐 아니라 신화, 전설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책명을 『조선설화집』으로 수정하여 간행하였으며, 각 작품마다 유사 자료와 한중일의 고문헌을 부가하여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⁵⁾ 김헌선 등과 최인학의 번역 작업은 『조선민담집』의 연구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이에 앞서 황인덕은 손진태의 구비문학 연구를 평가하는 논문에서, 『조선민담집』이 1920년대의 설화 연구 방향과 수준을 반영한 비중 있는 자료집임을 평가하면서도, 분류항목 개념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분류항목과 실제 나열한 자료들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는 문화·민속·역사적 관점을 중시하는 편저자의 의도가 개입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⁶⁾ 이수자는 손진태의 구비문학 성과를 개괄하면서 『조선민담집』의 내용과 채집방식을 간략히 소개하였고⁷⁾, 전경수는 『조선민담집』의 채보 일람표를 작성하여 연구의 편의를 제공하였다.⁸⁾

그런데 필자가 과문한 탓도 있겠지만, 이상의 번역서와 간략한 소개 논문을 제외하고는 『조선민담집』에 관한 본격적 논문 한 편을 찾아보기

4) 손진태 저, 김헌선·강혜정·이경애 역, 『한국 민화에 대하여』, 역락, 2000; 손진태 지음, 최인학 역편,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5) 최인학 역편, 『역자 일러두기』 중에서, 위의 책.

6) 황인덕, 「손진태의 구비문학 연구」, 『구비문학연구』 2집, 한국구비문학회, 1995, 301-304쪽.

7) 이수자, 「구비문학 연구의 성격과 의의」, 한국역사민속학회 편,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연구』, 민속원, 2003, 223쪽

8) 전경수, 『손진태의 문화인류학-제국과 식민지 사이에서』, 민속원, 2010, 175-183쪽.

힘들다. 근래 역사학이나 민속학, 인류학, 구비문학 분야에서 손진태의 학문활동이 재조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⁹⁾, 『조선민담집』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미하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먼저 설화 채록방식 및 수록작품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조선민담집』에는 설화의 채록시기와 방법, 지역, 제보자 등에 관한 정보들이 대부분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분석하는 것이 『조선민담집』의 학술적 성과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후속 연구를 위하여 일본어와 한문으로 쓰인 154편의 원제를 평이한 우리말로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설화 분류체계와 실제 분류작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분류체계를 가지고 수록 작품들을 재분류할 것이다. 『조선민담집』에는 손진태를 전후한 연구자들이 수집한 설화와는 분명한 차이와 개성을 지니고 있는 작품들이 많다. 그런데 손진태의 설화 분류체계와 실제 분류작업에는 분명한 오류가 존재하며, 수록 작품의 개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필자는 조희웅의 설화분류안으로 재분류 작업을 하여 수록 작품의 양상을 체계화하고 문학·문화적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2. 1920년대 손진태의 학문과정과 설화 채록

2.1. 설화 연구와 채록 경위

손진태는 1900년 12월 28일 부산 동래의 하단 남창마을에서 출생하였

9) 이러한 방면에 최근의 연구성과로는 한국역사민속학회가 편한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연구』(2003), 남근우의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동국대 출판부, 2008), 전경수의 『손진태의 문화인류학-제국과 식민지 사이에서』(민속원, 2010), 김광식의 「손진태의 비교설화론 고찰-신자료 발굴과 저작목록을 중심으로」(『근대서지』 5호, 근대서지학회, 2012) 등이 있다.

으며, 열두 살 때 서울로 와 중등학교에 입학하고, 1921년 3월 15회로 졸업한다. 중등학교의 제1회 교비장학생으로 선발된 그는 동경 유학길에 올라 1921년 4월 일본 와세다 대학 부속 와세다 고등학원에 입학한다. 그곳에서 그는 당시 고등학원에 강사로 출강하고 있던 인류학자 니시무라 신지(西村眞次) 교수와 운명적으로 조우하게 된다. 니시무라에게서 인류학과 민속학을 배우며 학문적 방향을 정한 손진태는 1924년 3월 졸업한 뒤, 같은 해 4월 와세다 대학에 입학하여 1927년 3월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한다(당시는 3년 과정이었음). 손진태는 와세다 고등학원과 대학의 유학시절 동안 니시무라 신지 교수에게서 인류학과 민속학, 고고학, 일본사 등을 배웠으며, 이것이 손진태의 학문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은 이미 논의된 바 있다.¹⁰⁾

그가 지면에 최초의 글을 발표한 것은 와세다 고등학원 3학년 때인 1923년이였다. 1923년 9월에 「고주몽 이야기」(『어린이』), 10월에는 「類利 이야기」(『어린이』), 「神話上에서 본 古代의 女性觀」(『신여성』)을 발표하였는데, 그의 집필 활동이 ‘아동문학’과 ‘설화’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1923년부터 1924년까지의 글은 주로 아동문학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1925년 말부터는 『東洋』, 『新民』 등의 잡지에 「朝鮮に於けるシヤマニヅム」, 「시베리아 각 민족의 결혼형식」, 「土俗研究旅行記」, 「朝鮮の古歌と朝鮮人」 등 민속학 및 문학 분야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1927-9년 사이에는 『新民』에 「조선민간설화의 연구-민간설화의 문화사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15편의 설화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¹¹⁾ 이 논문들의 부제가 ‘민간설화의 문화사적 고찰’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손진태는 조선의 설화에 ‘조선민간설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문화사적’ 시각에서 고찰하겠다고 했다. 손진태의 학문과정으로 유추해

10) 손진태의 일본 유학시절, 니시무라 신지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광식, 전경수가 이미 소상히 고찰한 바 있다(최광식, 「손진태의 생애와 학문 활동」, 한국역사민속학회 편, 편, 앞의 책, 26-27쪽; 전경수, 앞의 책, 25-66쪽 참조).

11) 김광식, 앞의 논문, 47-52쪽.

보건대, 그가 말하는 『조선민담집』의 ‘민담’은 ‘민간설화’ 또는 ‘민족설화’라는 개념에 가깝다. 실제로 『조선민담집』 수록 작품에는 신화·전설·민담·동화가 포괄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사의 시각’이란 바로 문학·문화·민속·역사를 포괄한 관점이다. 이는 곧 설화를 민족문화의 중요 영역으로 이해하여, 설화를 통하여 민족문화를 이해하려는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손진태는 『조선민담집』에 민간신화, 민간신앙, 향토문화적 특성, 해학을 주제로 다룬 설화를 비중있게 수록하고, 또 부록에는 외국의 유사 유형담을 수록하여 조선 민간설화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런데 손진태가 본격적 집필활동에 앞서 이미 1920년에 설화 채록 활동을 시작하였던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자서>에서 “내가 이것(필자 주: 옛날이야기[昔話])에 대한 흥미와 책임감을 느낀 것은 10년 전 동경에 가서 인류학과 민속학에 관한 서적을 읽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로 나는 여름휴가 때 조선으로 건너가 민속을 조사하는 한편 민간설화의 수집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¹²⁾고 했다. 그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1921년이다. 그런데 『조선민담집』에 수록된 작품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수집한 설화는 1920년 9월 자신의 고향인 경남 동래군 사하면 하단리 장씨 부인에게서 채록한 <妻妾爭摘夫髮>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이미 중등학교 시절에 설화에 관심을 두고 채록을 시작한 것이다.

『조선민담집』에 수록된 154편의 설화는 1920년 9월에 시작하여 1930년 5월까지 10년에 걸쳐 채록과 기고에 의해 수집되었다. 이중에서도 손진태는 1923년, 27년, 28년, 30년 즈음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였다. 그는 1921년 11월에 전북 전주에서 5편의 설화를 채록하였고, 1923년 7-8월에는 충북 괴산, 경북 안동, 달성, 칠곡 왜관, 성주, 함남 함흥, 전북 전

12) 최인학 역편, 앞의 책, 5쪽. 앞으로 『조선민담집』의 본문 인용문은 모두 최인학의 책에서 인용함을 밝힌다.

주, 경남 동래, 부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역을 다니며 55편의 설화를 채록하였다. 1927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경남 마산, 김해, 왜관, 경성, 강원도 춘천, 충북 옥천, 평남 평양 등지에서 24편의 작품을, 192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함남 정평, 경남 마산, 경북 김천, 평북 정주, 평남 강서, 경성 등지에서 35편의 설화를, 1930년에는 1월과 5월에 각각 대구와 전남 여수에서 16편의 작품을 채록하였다. 손진태가 <자서>에서 언급하였듯이 그의 일본 유학시절 동안의 설화 채집 시기는 주로 방학 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3월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시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어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을 1921년 11월에 5편, 1923년 5월에도 1편, 1923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도 8편의 설화를 채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가 수시로 조선을 직접 방문하여 채집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마해송이 1925년 5월에 <호랑이보다 무서운 곳감>을 기고한 것처럼, 이때의 수집 자료도 지인들의 기고에 의해 얻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1927년 이후 그는 한층 왕성하게 자료를 채집하였는데, 1927년 6월부터 1930년 5월까지의 시기에 채집한 원고가 책의 절반이 넘는 78편이다. 전경수는 손진태가 “1927년 3월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1932년 12월 동양문고 사서가 될 때까지의 행적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록을 찾기 어렵다.”¹³⁾고 하였다. 그런데 『조선민담집』의 설화 채록 기록과 「조선민간설화의 연구」 논문 집필 기록을 보건대, 손진태는 적어도 1927년 3월 졸업 이후 조선에 머무르며 1929년 4월까지 조선의 민간설화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논문을 집중적으로 집필하는 한편, 1930년 5월까지 조선 각지를 다니며 민담을 채집하고 그해 12월 동경에서 책을 간행하기까지 자료를 정리·출간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채록 시기별 작품수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13) 전경수, 앞의 책, 41쪽.

표 1 <채록 시기>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나의기억	소계
1	5	1	55	4	1	4	24	35	3	16	9	154

채록 지역을 보면, 『조선민담집』의 채록 범위는 전국적이다. 손진태는 충청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다니며 설화를 채록하였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많이 채록한 지역은 경북, 경남, 함경남도이다. 세 지역에서 채록한 작품수는 107편으로, 전체의 70%에 달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다. 경북 지방에서는 안동, 달성, 칠곡 왜관, 성주, 대구에서 주로 채록하였고, 경남에서는 동래, 부산, 마산, 김해, 왜관, 함경남도에서는 함흥, 정평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외에도 경성, 전북 전주, 평양, 충북 괴산, 옥천 등을 오가며 설화를 채록하였는데, 그 수는 38편이다. 조사 지역별 작품수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사 지역>

경북	경남	함경남도	경성	전남	전북	충북	평안도	개성	함경북도	강원	나의기억	소계
41	34	32	10	9	8	4	3	2	1	1	9	154

2.2. 조사 방식

『조선민담집』의 <自序>와 <일러두기> 항목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손진태의 설화 조사방식의 특징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민담집』 수록 작품은 대부분 편찬자 본인이 근대적 학문방식에 의거, 직접 현지조사하여 채록하였다. 이는 이전에 일본인 교사나 관학자 출신 저자들이 출간한 『朝鮮物語集』(高橋亨, 1910), 『傳説の朝鮮』(三輪環, 1919), 『朝鮮童話集』(朝鮮總督府, 1924) 등과 같이 지방의

관청이나 학교의 학생들을 통해 대리모집·정리한 방식과 대별되는 방식이다. 손진태는 <자서>에서 “나는 먼저 자기가 듣고파 하는 이야기를 한편 스스로 말하고 ‘이러한 이야기는 없을까요’ 하는 식으로 제일의 방법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또한 이야기가 도중에 끊겼을 경우, 자신이 다른 이야기를 꺼내어 상대로 하여금 휴식 시간을 주어 그 사이에 또다른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서의 말미에서는 “화자에게 적당한 보수를 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자기의 태도를 아주 낮추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듯이, 조심스러운 조사방법을 취하였다. 이는 오늘날 구비문학 답사 때 채용하는 방식과 거의 동일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신중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손진태는 임의로 자료를 가공하지 않고 원 자료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는 일러두기에서, 본인은 제보자의 원고를 각각 청취한 후에 곧 필사하였으며, 약간의 수정을 제외한 곳을 빼면 창의로 옮긴 곳은 조금도 없다고 하였다.

둘째, 손진태의 지인들로부터 기고 받은 설화도 전체의 1/5 가량 된다. 『조선민담집』에는 이은상, 김량하, 마해송, 방정환, 이상화 등 당시 지식인들이라 할 수 있는 손진태의 지인들에게서 기고를 받는 형식으로 채집한 작품이 최소 26편을 넘는다. 이는 손진태가 “이 책에 수록한 조선의 민간설화는 거의 전부 내 자신이 직접 채집한 것으로 지방의 유지 諸氏가 나와 이 일에 호의를 가져 특별히 기고해준 약간의 설화를 포함시킨 것이다.”라고 밝힌 것에서도 알 수 있으며, 작품 뒤에 기재해놓은 제보자의 성명을 통해 그 작품명을 확인할 수 있다. 26편이라는 기고편의 수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마산의 명주영이라는 사람은 12편의 설화를 제보하였는데, 그중 한 편은 제보자명에 이은상과 명주영의 이름이 병기되어 있음으로 보아 명주영 역시 직접 채록 대상자가 아닌 기고자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민담집』의 기고 설화의 비중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 최인학은 이상의

지명도 높은 사람들의 제보 설화에 대해 “개작 미화” 가능성을 두며 아쉬움을 표시하였는데¹⁴⁾, 지식인들이 제보한 설화라고 해서 그 가치가 폄하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나름의 개성과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셋째, 손진태는 채집한 자료 중에서도 문헌상에 보이는 설화나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간행된 설화집에 포함되거나 중복된 자료는 전부 제외하였으며, 또한 중국 및 외국의 설화는 제외하고 조선 고유의 설화라고 인정될 만한 것만 수록하였다고 했다.

이처럼 손진태가 설화에 대해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었고 조사방식이 비교적 엄밀하고 객관적임을 고려할 때, 『조선민담집』은 ‘1920~30년 기간 동안 채록한 조선 고유의 구비설화를 집성한 설화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3. 제보자

『조선민담집』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제보자가 구술한 것을 채록한 것들인데, 그중 다수의 작품을 제보한 사람은 명주영, 김량하, 김호영, 김문환, 이은상, 김동빈, 김영석, 유춘섭 등이다. 주요 제보자들의 거주지는 경남과 함남, 경북, 전북 등지였다. 경남 마산의 명주영은 <방귀시합>, <어리석은 세 며느리> 등의 12편의 설화를 구술하였고, 함경남도 하동의 김호영은 <손톱을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생식기의 유래>, <오누이 결혼> 등 11편의 설화를, 경북 김천의 김문환은 <국사동 최씨 전설>, <안동조씨와 신술>, <벼룩과 모기와 이> 등 10편의 설화를 구술하였다. 이외에 무녀 석씨, 노인 김영석, 18세의 장동원, 이뿐이의 조모(69세) 등이 설화를 구술하였으며, 손진태 본인(‘나의 기억’)을 포함하여 제보자는 총 42명이다.

제보자 중에는 농학박사(김량하), 시인(이은상, 이상화), 아동문학가

14) 최인학, 「역자 해설」, 앞의 책, 314쪽.

(방정환, 마해송, 고한승), 교육자(조재호) 등과 같이 유명인과 지식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들이 기고한 작품명은 다음과 같다.

김량하: <조화신과 송악·대동강·삼각신의 신>, <큰 지렁이의 아들 최충>, <아미타불을 외워라>, <개를 그려 먹다>, <구미호>, <일광으로 임신함>, <관은 크게>, <조 한 알로 정승의 딸을 얻다>, <지하국대적퇴치(3)>, <김소년과 대도적>, <곡조문아문 설낭자>(이상 11편)

이은상: <중의 악행과 남편의 원령>, <개미와 토끼>, <효자와 원숭이>, <국사당신과 장기를 두다>, <나쁜 호랑이 벌주다>, <호랑이 퇴치>, <모래 돛대>, <독이 든 꽃감>(이상 8편)

방정환: <수탉전설>, <개와 고양이와 구슬>

이상화: <지하국대적퇴치(1)>, <악운의 소년과 신승>

마해송: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

고한승: <효자와 동삼>

조재호: <산·강·바다·평원의 유래>

1920년대는 조선에서 동화라는 장르가 태동하고 형성되던 시기이다. 당시 동화 운동을 주도하던 방정환은 “외국동화의 수입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는 우리 동화의 무대의 기초가 될 고래동화의 발굴이며 그 어느 것보다 어려운 일”¹⁵⁾이라고 하였다. 전래동화의 수집 작업은 방정환 자신의 재화 작업과 개벽사의 전국적인 고래동화 현상모집으로 이어져 전국의 무명, 유명 기고자들이 이에 동참하였다. 방정환, 이상화, 마해송 등이 기고한 작품들은 대부분 전래동화의 범주에 포함되는 작품들로서, 이들은 “고래동화의 발굴”이라는 의식으로 설화를 기고한 것으

15) 방정환, 「새로 개척되는 동화에 대하여」, 『개벽』, 개벽사, 1923.1.

로 보인다. 이상의 작품들은 원형의 ‘개작·미화’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오히려 당대의 식자층이 동참하여 채록한 설화라는 점에서 새로운 가치가 부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요 제보자들의 정보를 도표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주요 제보자의 거주 지역과 명단>

지역	제보자	수록작품 횟수	비고
마산	명주영	12회	
함남 정평	김량하	11회	이학사. 농학박사
함남 하동	김호영	11회	
경북 김천 아포면 국사동	김문환	10회	
경남 동래	나(손진태)의 기억	9회	
마산	이은상	8회	시조시인
여수	김동빈	8회	
칠곡 왜관	김영석	8회	노인
전주 완산	유춘섭	7회	
경성	방정환	2회	아동문학가
대구 본정	이상화	2회	시인
개성	마해송	1회	아동문학가
개성부	고한승	1회	아동문학가
경남 사천	조재호	1회	교육자

3. 『조선민담집』의 수록 작품과 분류 체계

『조선민담집』의 수록 작품명을 번역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⁶⁾.

16) 작품명은 최인학이 번역한 제목을 대부분 사용하였는데, 원문 대조 결과 10여 작품의 제목은 한자 표기에 오류가 있거나 맥락이 자연스럽게 않아 필자가 고쳐 사용하였다. 원 제목이 일본어, 또는 한문식 작명이기 때문에 한글 일반 제목은 좀 더 조심스럽게 번역하여 제시하지 않으면 이후 설화 연구에 혼동을 주기 쉽다. 수록 작품의 합당한 명칭에 대해서는 이후 다시 논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1부: 신화·전설류

1) 인간과 생물의 창생, 2) 세계의 멸망시대, 3) 생물은 물에서 생긴다, 4) 천동지정(天動地靜), 5) 해와 달과 별, 6) 해누이 달오빠(1), 7) 해누이 달오빠(2), 8) 일식과 월식, 9) 북두칠성의 유래, 10) 삼태성의 유래(1), 11) 삼태성의 유래(2), 12) 천등과 번개, 13) 산·강·해·바다·평원의 유래, 14) 조선 산천의 유래, 15) 지진의 유래, 16) 쌀물·밀물·풍랑의 이유, 17) 대홍수와 인류(1), 18) 대홍수와 인류(2), 19) 바닷물이 짠 이유, 20) 형제바위, 21) 인지(人智)의 한계, 22) 인간상식시대(人間相食時代), 23) 생식기의 유래, 24) 오누이 결혼, 25) 삿갓의 유래, 26) 기로(棄老) 전설, 27) 구렁이 퇴치 설화, 28) 말이나해보지 고개, 29) 사랑산과 절부암(節婦巖), 30) 매자(埋子) 전설, 31) 조화신과 송악·대동강·삼각산의 신, 32) 큰 지렁이의 아들 최충, 33) 병어리 삼년, 34) 청개구리, 35) 열불열녀 설화, 36) 의구 전설(1), 37) 의구 전설(2), 38) 광포(廣浦) 전설, 39) 김수로왕의 성기, 40) 나비의 유래, 41) 구포동신 전설, 42) 대구와 공주의 전설, 43) 하회유씨묘지 전설, 44) 송림사 연기, 45) 칠불사 전설, 46) 예비아 평원과 무심향과 혈천, 47) 국사동 최씨 전설, 48) 수탑 전설, 49) 관제묘 연기, 50) 체부동옥함가(體府洞玉函家), 51) 대홍수와 인류(3)

2부: 민속·신앙에 관한 설화

1) 처녀는 평토장, 2) 손톱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 3) 과부의 병과 백구의 성기, 4) 원귀 간의 다툼, 5) 구대 독자와 두 처녀, 6) 야미타 불을 외우라, 7) 개를 그려 먹다, 8) 구미호, 9) 일광으로 임신함, 10) 중의 악행과 남편의 원령, 11) 여우누이와 3형제, 12) 여산신과 용왕, 13) 중국의 여우황후, 14) 잉어여인과 가난한 남자, 15) 악운의 소년과 신승(神僧), 16) 뱀신랑 신선비[蛇新郎申士人], 17) 관은 크게, 18) 동삼소년(童參少年), 19) 북두칠성과 단명소년, 20) 강감찬설화(1), 21) 강감찬설화(2), 22) 강감찬설화(3), 23) 바늘과 큰 뱀, 24) 초야에 가출한 신랑, 25) 천년 묵은 지네와 닭, 26) 울소의 나쁜 거북, 27) 제사의 시간, 28) 인동조씨와 신승, 29) 조한준 미륵, 30) 봉침지의 굴, 31) 까치의 보은, 32) 김덕령 전설, 33) 복술 이야기 세 편¹⁷⁾

17) 최인학 역편 『조선설화집』에는 2부 33편 <복술 이야기 세 편> 뒤에 제34편으로

3부: 우화(寓話) · 돈지설화(頓智說話) · 소화(笑話)

1) 개미와 토끼, 2) 원숭이의 재판, 3) 평과 비둘기와 까치와 쥐, 4) 산 위의 시체 셋과 돈, 5) 명판결 두 건, 6) 효자와 동삼(童參), 7) 효녀와 비를 내리게 하는 선관, 8) 호랑이의 보은, 9) 효자와 원숭이, 10) 사냥꾼과 노루, 11) 쥐의 효도, 12) 지혜 있는 아이, 13) 사람이 피하는 성, 14) 박문수 설화(1), 15) 박문수 설화(2), 16) 이순신 일화, 17) 모래뿔대, 18) 독이 든 꽃감, 19) 사슴과 토끼와 두꺼비의 나이, 20) 무당호랑이, 21) 조한 알로 정승의 딸을 얻다, 22) 빈대와 벼룩과 이, 23)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24) 벼룩과 모기와 이, 25) 양은 소의 사촌, 26) 게으름뱅이, 27) 거짓말로 아내를 얻다, 28) 고래 뱃속에서, 29) 국사당신과 장기를 두다, 30) 단 똥, 31) 나쁜 호랑이 벌주다, 32) 대식가, 33) 천도의 꿈, 34) 바보 아내, 35) 어리석은 남편의 문상, 36) 주창과 관우, 37) 방귀 시합, 38) 세 바보 자매, 39) 세 바보 며느리, 40) 꼬마 신랑, 41) 음문에 돼지를 그리다, 42) 음문에 소를 그리다, 43) 부부가 떡을 놓고 다투다, 44)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 45) 사신 사이의 손문답, 46) 촌부불식경(村婦不識鏡), 47) 처첩 싸움에 남편 머리카락이 뽑히다[妻妾爭摘夫髮]

4부: 기타 민담

1) 잉어를 놓아주고 용녀를 얻다[放鯉得龍女], 2) 우렁각시[螺中美婦], 3) 개와 고양이와 구슬, 4) 호랑이 퇴치, 5) 머리 아홉 달린 도적, 6) 네 사람의 장사, 7) 지하국대적퇴치(1), 8) 지하국대적퇴치(2), 9) 지하국대적퇴치(3), 10) 김소년과 대도적, 11) 나그네와 여우와 호랑이, 12) 삼형제, 13) 곡조문하문설낭자(曲棗門下問薛郎子), 14)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다, 15) 고래와 새우의 크기, 16) 한 근의 사람 고기, 17) 상가승무노인곡(喪家僧舞老人哭), 18) 세 번 시련을 넘긴 정승[三難宰相], 19) 오복동 전설, 20) 범인은 서당 선생[名官治獄], 21) 가까이에 복사꽃 가지가 있다, 22) 처를 징벌하다, 23) 오늘밤에 오세요[今日夜來]

손진태는 수록 작품 154편을 이상과 같이 ‘신화·전설류’(51편), ‘민속·신앙 관련 설화’(33편), ‘우화·돈지설화·소화’(47편), ‘기타 민담’(23

<감동이>[柿童]가 실려 있는데, 이는 손진태의 원작(1930)에는 없는 작품이다. 혹시 뒤에 추가 수록된 작품이라면 정확한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다.

편)으로 분류하였다.

1부 신화·전설류에는 인간과 동물의 창생, 세계의 멸망, 해와 달, 별, 밀물과 썰물의 생성, 조선 산천의 유래 등 20여 편의 창세신화류, <기로 전설>, <구렁이 퇴치 전설>, <매자 전설>, <청개구리 전설>, <열불열녀 전설>, <의구(義狗) 전설>, <광포 전설>, <김수로왕의 성기>, <나비의 유래>, <구포동신 전설>, <국사동 최씨 전설> 등 30여 편의 전설이 수록되어 있다. 신화류의 작품들은 신이한 세계의 기원을 표현한 것으로서 신성성이 두드러진다. 전설류의 작품들은 대체로 민속학적 관점에서 향토문화의 유래들을 밝힌 것으로서 지역문화의 특성이 드러난다. 편저자가 지역 문학·문화를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전설류를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2부 민속·신앙 관련 설화에는 <처녀는 평토장>, <손톱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 <구미호>, <일광으로 임신함>, <중의 악행과 남편의 원령>, <여우 누이와 3형제>, <강감찬 설화>, <북두칠성과 단명소년>, <김덕령 전설>, <제사의 시간> 등 주로 민간신앙, 금기(禁忌)를 주로 한 민담이 33편 수록되어 있다. 손진태의 인류학적 관심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4,5,7,10,11,13,14,31번 등의 작품은 민속·신앙과는 관련이 먼 민담에 해당하는 작품이며, 2-19,25번의 작품은 1부 신화·전설류로 분류될 작품이다. 이와 같이 2부의 작품들은 분류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3부 우화·돈지설화·소화에는 <개미와 토끼>, <원숭이의 재판>, <팽과 비둘기와 까치와 쥐>, <산위의 시체 셋과 돈>, <효자와 동삼>, <효자와 원숭이>, <지혜 있는 아이>, <이순신 일화>, <호랑이보다 무서운 곳감> 등 대부분 동물담과 소담에 속하는 민담들이 47편 수록되어 있다. 3부의 작품들은 신성성이나 지역성, 종교적 성격(금기)이 약하고, 대체로 흥미·오락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모든 작품들이 그렇지는 않아 분류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우화는 인격화한 동식물

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로 3-1,2,3,19,22,23,24,25번 등 8편이 해당된다. 돈지설화(頓智說話)는 재치나 기지(奇智)를 주제로 하는 설화이니 소화와 큰 차이가 없는 개념인데, 나머지 39편 중에도 3-6,7,8,9,10번은 신이담 및 일반담에 해당하는 작품이고, 3-29번은 2부 민속·신앙 관련 설화에 해당하는 작품이니, 여기서도 분류의 일관성이 없다. 한편 3부의 작품들은 『조선동화집』(1924), 『조선동화대집』(1926), 『조선전래동화집』(1940)에 수록된 전래동화의 범주와도 대부분 일치한다.

4부 기타 민담에는 <우렁각시>, <개와 고양이와 구슬>, <호랑이 퇴치>, <머리 아홉 달린 도적>, <네 사람의 장사>, <지하국대적퇴치>, <삼형제>, <나그네와 여우와 호랑이> 등 흥미로운 내용의 민담 23편 수록되어 있다. 분류 항목을 ‘기타 민담’이라고 하였지만 대부분 신이담과 소담의 범주에 속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다. 이상의 작품들도 전래동화로 인식되는 작품이 많다.

이상에서 손진태 분류체계와 수록 작품을 호응시켜 성격을 파악하였는데, 분류항목에는 신화, 전설, 설화, 우화, 돈지설화, 소화, 민담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개념의 혼란을 일으키며, 유형 간 변별성도 분명치 않다. 오늘날 구비문학의 분류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분류는 설화의 신화·전설·민담의 3분류법에 맞지 않으며, 손진태의 의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개념과 분류가 논리적·체계적이지 않다. 실제 분류한 양상을 보면 1부는 대체로 신화·전설에 속하는 작품들이며, 2~4부는 민담에 속하는 다양한 유형의 작품들이 모호한 기준 아래 혼재되어 있다.¹⁸⁾ 후속 연구와 활용을 위해서라도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작품들을 재분류하고 성격을 변별해줄 필요가 있다.

18) 황인덕도 이 점을 지적하였다(황인덕, 앞의 논문, 303-304쪽).

4. 수록 작품의 재분류와 성격

그동안 한국설화의 분류방식을 제시한 이로는 장덕순, 최인학, 조희웅, 조동일 등이 있는데, 여러 모로 검토한 결과 필자는 조희웅의 분류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조희웅은 설화의 범주에 신화, 전설, 민담을 모두 포함하고, 한국적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류안을 제시하였다. 설화의 제1차적 분류항목은 동(식)물담, 신이담, 일반담, 소담, 형식담의 5개 항목이며, 이것은 다시 26개의 세부항목으로 하위 분류된다. 조희웅의 설화분류안은 다음과 같다.

1. 동(식물담): 1) 기원담 2) 지략담 3) 치우담 4) 경쟁담
2. 신이담: 5) 기원담 6) 변신담 7) 응보담 8) 초인담 9) 운명담 10) 주보담
3. 일반담: 11) 기원담 12) 교훈담 13) 출신담 14) 염정담
4. 소담: 15) 기원담 16) 풍월담 17) 지략담 18) 치우담 19) 과장담 20) 우행담 21) 포획담 22) 음설담
5. 형식담: 23) 어회담 24) 무한담 25) 단형담 26) 반복담¹⁹⁾

이러한 설화 분류 방식에 의거하여 손진태의 『조선민담집』 154편의 유형을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1부(51편)
1. 동식물담(1): 기원담(1)
 2. 신이담(35): 기원담(34), 응보담(1)
 3. 일반담(14): 기원담(11), 교훈담(3)
 4. 소담(1): 기원담(1)

19)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 한국연구원, 1983, 21-23쪽.

2부(33편)

- 2. 신이담(31): 기원담(6), 변신담(13), 응보담(4), 초인담(2), 운명담(6)
- 4. 소담(1): 우행담(1)
- 5. 형식담(1): 반복담(1)

3부 우화·재치설화·소화(47편)

- 1. 동식물담(8): 기원담(6), 지략담(1), 경쟁담(1)
- 2. 신이담(5): 기원담(1), 응보담(3), 주보담(1)
- 3. 일반담(1): 교훈담(1)
- 4. 소담(31): 지략담(9), 치우담(14), 과장담(5), 우행담(3)
- 5. 형식담(2): 반복담(2)

4부 기타 민담(23편)

- 2. 신이담(7): 기원담(1), 변신담(3), 응보담(1), 초인담(2)
- 3. 일반담(4): 기원담(1), 교훈담(2), 염정담(1)
- 4. 소담(11): 풍월담(1), 지략담(6), 과장담(1), 우행담(1), 포획담(1), 음설담(1)
- 5. 형식담(1): 어희담(1)

작품명을 포함하여 『조선민담집』의 분류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조선민담집』 수록작품의 재분류>

대분류	소분류	작품명	소계
동식물담 (9)	기원담	청개구리, 개미와 토끼, 꿩과 비둘기와 까치와 쥐, 빈대와 벼룩과 이,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벼룩과 모기와 이, 양은 소의 사촌	7
	지략담	원숭이의 재판	1
	치우담		0
	경쟁담	사슴과 토끼와 두꺼비의 나이	1
신이담 (78)	기원담	인간과 생물의 창생, 세계의 멸망시대, 생물은 물에서 생긴다, 천동지정, 해와 달과 별, 해누이 달오빠(1), 해누이 달오빠(2), 일식과 월식, 북두칠성의 유래, 삼태성의 유래(1), 삼태성의 유래(2), 벼락과 번개, 산·강·바다·평원의 유래, 조선 산천의 유래, 지진의 유래, 썰물·밀물·풍랑의 유래, 대홍수와 인류(1), 대홍수와 인류(2), 대홍수와 인류(3), 광포전설, 구포동신 전설, 인지의 한계, 인간상식시대, 생식기의 유래, 샷갯의	42

		유래, 조화신과 송악 대동강 삼각산의 신, 큰 지렁이의 아들 최충, 나비의 유래, 대구와 공주의 전설, 송림사 연기, 수탉 전설, 관제묘연기, 체부동 옥합가, 바닷물이 짠 이유, 구미호, 일광으로 입신함, 울소의 나쁜 거북, 제사의 시간, 개와 고양이와 구슬, 처녀는 평토장, 초야에 가출한 신랑, 효자와 동산	
	변신담	손톱을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 과부의 병과 백구의 성기, 여우누이와 삼형제, 여산신과 용왕, 중국의 여우황후, 잉어여인과 가난한 남자, 악운의 소년과 神僧, 뱀신랑 신선비, 동삼소년, 강감찬 설화(1), 강감찬 설화(2), 바늘과 큰 뱀, 천년 묵은 지네와 닭, 우렁각시, 김소년과 대도적, 나그네와 여우와 호랑이	16
	응보담	구렁이 퇴치설화, 원귀간의 다툼, 중의 악행과 남편의 원령, 까치의 보은, 호랑이의 보은, 효자와 원숭이, 사냥꾼과 노루, 잉어를 놓아주고 용녀를 얻다, 9대 독자와 두 처녀	9
	초인담	강감찬 설화(3), 복술 이야기 세 편, 네 사람의 장사, 삼형제	4
	운명담	관은 크게, 복두칠성과 단명소년, 인동 조씨와 신승, 조한준 미륵, 봉침지의 굴, 김덕령 전설	6
	주보담	효녀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선	1
일반담 (19)	기원담	형제바위, 오누이 결혼, 말이나해보지 고개, 사랑산과 절부암, 열불열녀 설화, 의구전설(1), 의구전설(2), 하회유씨묘지 전설, 칠불사 전설, 예비야 평원과 무심향과 혈천, 국사동 최씨 전설, 오복동 전설	12
	교훈담	기로전설, 매자전설, 병어리 삼년, 쥐의 효도, 상가승무노인곡, 세 번 시련을 넘긴 정승	6
	출신담		
	염정담	가까이에 복사꽃 가지가 있다	1
소담 (44)	기원담	김수로왕의 성기	1
	풍월담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다	1
	지략담	명판결 두 건, 지혜 있는 아이, 사람이 피하는 성, 박문수 설화(1), 박문수 설화(2), 이순신 일화, 모래뿔대, 독이 든 꽃감, 꼬마신랑, 머리 아홉 달린 도적, 지하국대적퇴치(1), 지하국대적퇴치(2), 지하국대적퇴치(3), 한 근의 사람고기, 범인은 서당선생	15
	치우담	산위의 시체 셋과 돈, 단똥, 천도의 꿈, 바보 아내, 어리석은 남편의 문상, 주창과 관우, 세 바보자매, 세 바보 며느리, 음문에 돼지를 그리다, 음문에 소를 그리다, 부부가 떡을 놓고 다투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 촌부불식경, 처첩 싸움에 남편의 머리카락이 뽑히다	14
	과장담	게으름뱅이, 거짓말로 아내를 얻다, 고래 뱃속에서, 대식가, 방귀시합, 고래와 새우의 크기	6

	우행담	아미타불을 외우라, 무당호랑이, 국사당신과 장기를 두다, 사신간의 손 문답, 곡조문하문설낭자	5
	포획담	호랑이 퇴치	1
	음설담	처를 징벌하다	1
형식담 (4)	어희담	오늘밤에 오세요	1
	무한담		
	단형담		
	반복담	개를 그려 먹다, 나쁜 호랑이 벌주다, 조 한 알로 정승의 딸을 얻다	3
합계	154편		

『조선민담집』은 전체 154편 중 신이담이 78편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으며, 소담이 44편으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일반담 19편, 동식물담과 형식담은 각각 9편, 4편 순으로 비중이 작다. 신이담과 소담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조선 설화’의 특징일 수도 있고, 『조선민담집』의 특징일 수도 있다.

신이담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상적인 초인들의 신비스런 이야기를 말한다. 그 중에서 우주와 인류, 조선 산천, 지방의 유래와 신화, 전설을 포함한 기원담의 비중이 크고, 동물들이 인간으로 변신하여 일어나는 변신담, <관은 크게>, <북두칠성과 단명소년>, <조한준 미륵>같이 인간의 수명과 예정된 운명을 논한 운명담 순으로 작품 수가 구성된다.

신이담에서는 창세신화, 거인설화, 대홍수설화 등 신화의 세계가 주목된다. 신화에는 창세신화를 비롯하여 인류의 탄생, 조선 산천의 유래 등을 이야기한 것이 많다. 창세신화에는 단형 서사가 많다. 한 두 문장으로 구성된 단형 서사는 서사적 완결성이 떨어져 채록자가 누락시켜도 그만일 텐데, 손진태는 그러한 서사를 빠뜨리지 않고 굳이 수록하였다. 이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은 재차 위쪽으로 올

라가고 땅은 하늘의 압력에 의해 평평하게 되었다. 그후 지상에서는 첫째로 인간이 생겨난 뒤 많은 생물이나 또 다른 생물들이 생겨났다.”

(1-1. <인간과 생물의 창생> 전문)

“생물은 무엇이나 물에서 생겨난 것이다. 인간도 물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1-3, <생물은 물에서 생긴다> 전문)

“하늘은 움직이지만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도 위의 남자는 움직이지만 밑에 있는 여자는 움직이지 않는다.”(1-4. <천동지정> 전문)

위 설화들은 짧지만, 간명하게 하늘과 땅, 생물, 인간, 남자와 여자의 창생 원리를 설명하였는데, 그야말로 민간설화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한국의 대표적 건국신화 <단군신화>나 <박혁거세 신화> 등이 수록되지 않은 점을 가지고 민족설화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조선민담집』의 민간설화집으로서의 특성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이전 일본인들이 채록한 민담, 설화집에는 신화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물어집』(1910)이나 미와 다마키의 『傳説の朝鮮』(1919)을 보면, 다만 소박한 민담이나 지역 전설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하여 『조선민담집』에는 인간과 생물의 창생, 대홍수와 인류의 탄생, 세계의 멸망과 재건, 우주적 질서에 관한 신화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대한 것,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소박하면서도 대담한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조선민담집』에는 조선 특유의 지역적, 민족적 특성을 지닌 ‘전설’이 풍부하게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은 ‘신이담→기원담’이라는 조희웅의 설화 분류 방식에 의해 부각된 특징이다.

소담은 주로 웃음·재간·바보에 관한 이야기로, 위기의 상황을 헤쳐 나갈 재치·지혜·용기를 이야기하는 지략담, 고지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조롱·풍자하고 지혜를 강조하는 치우담의 비중이 2/3가 넘는다. 소담 유형은 조선인들의 발랄한 기상과 재치를 잘 드러내주는 내용으로서, 1920년대에 활발하게 모집·재화되었던 ‘고래동화’·‘전래동화’의 범

주와 거의 일치하는 작품들이다. 손진태 역시 이러한 전래동화 운동이 진행되던 시대적 분위기를 의식하고 이러한 작품들을 발굴하여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밥 먹기가 귀찮아서 떡을 목을 맨 채 굶어 죽었다는 <게으름뱅이>, 고래 뱃속에 들어간 한 남자가 고래 뱃속을 찢고 나온 <고래 뱃속에서> 등 과장담(6편), 우연한 행운을 이야기한 우행담(5편), 포획담, 음설담 등은 민중들의 해학과 풍자의 정신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일반담은 신비스런 요소가 제거된 보통 인간들의 이야기이다. 형제바위, 사랑산과 절부암, 의구 전설 등 전설이나 지역에 관한 기원담의 비중이 크고, <기로 전설>, <취의 효도> 등 효에 관한 일화를 담은 교훈담이 그 뒤를 잇는데, 손진태의 민속학적 관심이 투영된 결과라 여겨진다.

이러한 유형 분류를 통하여 손진태가 채록 자료들을 통해서 조선 민중들의 발랄하고 대담한 상상력, 풍자와 해학의 정신, 삶의 다양한 양태 등을 보여주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동시대의 다른 설화집과 비교할 때 더욱 그 특성이 부각된다.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물어집』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관찰자로서의 자각을 지닌 다카하시는 『조선물어집』에 사회와 인생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운명론적 세계관을 담은 설화를 많이 수록하였다.²⁰⁾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설화집인데, 손진태와 다카하시의 설화집 간에는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필자는 이를 설화 채록·편찬자의 시각에서 원인을 찾는다. 편찬자는 편찬과정에서 책에 수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채록 자료를 접하였을 것인데, 결국 편찬자가 어떠한 시각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수록 작품이 선택되고, 자료집의 성격이 규정된다. 그리고 그렇게 편찬된 설화집을 가지고 후대에 설화 향유층의 의식 규명 작업을 하게 된다. 식민사관의 소유자 다카하시에 대하여 조남호가, “노골적으로 조선과 조선인을

20) 권혁래, 「근대초기 설화·고전소설집 『조선물어집』의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언어문학』 54집, 한국언어문학회, 2008, 222-224쪽.

멸시하는 등, 악질적인 식민지 관료이자 교수였다.”고 평가한 것처럼²¹⁾, 다카하시의 편찬 시각에는 선협적으로 조선의 설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비판적·운명론적 세계관을 담은 설화들을 주로 내세웠고, 그 밑에 깔린 민중들의 정신을 저급하게 평가하였다는 혐의가 있다.²²⁾ 반면, 역사·인류학자의 정체성을 지닌 손진태는 민족의식이 발현되고 해학적이며, 인생에 긍정적인 내용의 설화 유형을 적극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조선의 문화 및 민중의식도 다르게 파악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조선민담집』의 분류상 특징은 다른 설화집, 동화집과 비교할 때 분명히 드러난다. 『조선물어집』은 설화류 24편 중 신이담과 소담이 각각 12편, 9편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²³⁾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동화집』(1924)은 총 25편 중 신이담이 14편, 동물담이 6편이며,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1926)은 총 83편 중 소담이 41편, 신이담 27편, 동물담 12편 순이다.²⁴⁾ 『조선민담집』과 『조선물어집』은 신이담과 소담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작품의 성격은 상이하다는 점을 앞에서 고찰하였다. 설화를 채록한 것이지만 ‘동화’를 표방한 『조선동화집』·『조선동화대집』 등은 『조선민담집』과는 작품 유형에서 차이가 있다.

5. 맺음말

본고는 손진태의 설화 채록방식 및 설화 분류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분류체계를 가지고 수록 작품들을 재분류하고,

21) 다카하시 도루 저, 조남호 역, 『조선의 유학』, 소나무, 1995, 7쪽.

22) 권혁래, 앞의 논문, 226-227쪽.

23) 조희웅, 「일본어로 쓰여진 한국설화/한국설화론(1)」, 『어문학논총』 24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5, 19쪽.

24) 권혁래, 「1920년대 민담의 동화화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 『민족문학사연구』 39호, 민족문학사학회, 2009, 101쪽.

작품의 문학·문화사적 성격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민담집』에는 1920년부터 1930년까지 채록된 조선의 민간설화 154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1930년 12월 日本 東京의 郷土研究社에서 간행되었으며, 표기문자는 일본어이다. 손진태의 『조선민담집』은 설화 채록의 초창기인 1920년대에 조선의 설화를 가장 폭넓게, 그리고 원형 그대로 채록·집성한 설화집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미가 크다.

『조선민담집』 수록 작품은 대부분 편찬자 본인이 근대적 학문방식에 의거, 직접 현지조사하여 채록한 것이나, 당시 유명인들의 기고 설화도 26편이 넘는다. 손진태는 이미 간행되었거나 중복된 자료나 외국의 설화는 제외하였음을 밝히었다. 채록 지역은 전국적이나, 경북, 경남, 함남에서 채록한 자료가 전체의 70%에 달할 만큼 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손진태는 수록 작품 154편을 ‘신화·전설류’(51편), ‘민속·신앙 관련 설화’(33편), ‘우화·돈지설화·소화’(47편), ‘기타 민담’(23편)으로 분류하였다. 1부 신화·전설류에는 창세신화류와 지역 전설이 수록되어 있다. 신화류의 작품들은 신이한 세계의 기원을 표현한 것으로서 신성성이 두드러진다. 전설류의 작품들은 대체로 민속학적 관심에서 향토문화의 유래들을 밝힌 것으로서 지역문화의 특성이 드러난다. 2부 민속·신앙 관련 설화는 민간신앙, 금기(禁忌)를 주로 한 민담들인데, 분류의 일관성은 떨어진다. 3부 우화·돈지설화·소화에는 대부분 동물담과 소담에 속하는 민담들인데, 모든 작품들이 그렇지는 않다. 신이담 및 일반담과 민속·신앙 관련 설화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뒤섞여 있어 여기서도 분류의 일관성이 없다. 4부 기타 민담은 대부분 신이담과 소담의 범주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이처럼 손진태의 분류는 신화, 전설, 설화, 우화, 돈지설화, 소화, 민담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개념의 혼란을 일으키며, 유형 간 변별성도 분명치 않다. 실제 분류한 양상을 보면 1부는 대체로 신화·전설에 속하

는 작품들이며, 2~4부는 민담에 속하는 다양한 유형의 작품들이 모호한 기준 아래 혼재되어 있다. 후속 연구와 활용을 위해서라도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작품들을 재분류하고 성격을 변별해줄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조희웅의 설화 분류법에 의거하여 재분류하였는데, 그 결과 전체 154편 중 신이담이 78편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으며, 소담이 44편으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다. 그 외에 일반담은 19편, 동식물담과 형식담은 각각 9편, 4편이다.

신이담에서는 창세신화, 거인설화, 대홍수설화 등 신화의 세계가 주목된다. 신화에는 창세신화를 비롯하여 인류의 탄생, 조선 산천의 유래 등을 이야기한 것이 많다. 소담은 주로 웃음·재간·바보에 관한 이야기로, 위기의 상황을 헤쳐 나갈 재치·지혜·용기를 이야기하는 지략담, 고지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조롱·풍자하고 지혜를 강조하는 치우담의 비중이 2/3가 넘는다. 이러한 설화들은 조선인들의 발달한 기상과 재치를 잘 드러내준다. 이밖에 과장담, 우행담, 포획담, 음설담은 민중들의 해학과 풍자의 정신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일반담은 신비스런 요소가 제거된 보통 인간들의 이야기이다. 전설이나 지역에 관한 기원담과 효에 관한 일화를 담은 교훈담 등이 있는데, 이에는 손진태의 민속학적 관심이 투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손진태는 민중들의 발달하고 대담한 상상력, 풍자와 해학의 정신, 삶의 다양한 양태 등이 나타난 설화들을 채록·집성함으로써 조선 민간설화의 민족적·문화적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다카하시 도루 등 일본인 설화 채록자들이 사회와 인생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운명론적 세계관을 담은 설화를 많이 수록하고, 이를 통하여 설화에 투영된 민중들의 정신을 저급하게 평가한 결과와 대별된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조선민담집』의 분류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조희웅의 설화 분류법을 가지고 수록 작품들을 재분류하고 성격 파악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연구결과가 평면적이라는 지적도 있지

만, 『조선민담집』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을 자위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민담집』의 성격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이 현재 한국의 대표적 설화로 알려진 작품들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고찰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재철, 「N.G. 가린의 개화기 한국설화자료의 수집과 채록방법」, 『한국설화문학의 탐구』, 단국대 출판부, 2009.
- 권혁래, 「1920년대 민담의 동화화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 『민족문학사연구』 39호, 민족문학사학회, 2009, 101쪽.
- 권혁래, 「근대초기 설화·고전소설집 『조선물어집』의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언어문학』 54집, 한국언어학회, 2008, 222-227쪽.
- 권혁래 역저, 『조선동화집』, 집문당, 2003.
- 김광식, 「손진태의 비교설화론 고찰-신자료 발굴과 저작목록을 중심으로」, 『근대서지』 5호, 근대서지학회, 2012, 47-52쪽.
- 김광식, 「우스다 잔운(薄田斬雲)과 한국설화집 「조선총화」에 대한 연구」, 『동화와번역』 20,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10.
- 남근우,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 동국대 출판부, 2008.
- 다카하시 도루 저, 조남호 역, 『조선의 유학』, 소나무, 1995, 7쪽.
- 방정환, 「새로 개척되는 동화에 대하여」, 『개벽』, 개벽사, 1923.1.
- 손진태, 『조선민담집』, 東京: 郷土研究社, 1930.
- 손진태, 「조선민간설화의 연구-민간설화의 문화사적 고찰」 1-15, 『신민』 27-48집, 1927~29.
- 손진태 저, 김현선·강혜정·이경애 역, 『한국 민화에 대하여』, 역락, 2000.
- 손진태 저, 최인학 역편,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 안상훈 역, 『조선설화』, 한국학술정보, 2006.
- 이수자, 「구비문학 연구의 성격과 의의」, 한국역사민속학회 편,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연구』, 민속원, 2003, 223쪽.
- 전경수, 『손진태의 문화인류학-제국과 식민지 사이에서』, 민속원, 2010, 25-66, 175-183쪽.
- 전성희, 「러시아에서 최초로 번역·출판된 『한국설화』의 성격과 특징」,

『한국민속학』 40-1, 한국민속학회, 2008.

조희웅, 「일본어로 쓰여진 한국설화/한국설화론(1)」, 『어문학논총』 24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5, 19쪽.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 한국연구원, 1983, 21-23쪽.

최광식, 「손진태의 생애와 학문 활동」, 한국역사민속학회 편,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연구』, 민속원, 2003, 26-27쪽.

황인덕, 「손진태의 구비문학 연구」, 『구비문학연구』 2집, 한국구비문학회, 1995, 301-304쪽.

<Abstract>

A Study on “*Joseon Folktales*” compiled by
Son Jin-tae, an Anthology of Folk Tales from
the 1920’s

Kwon, Hyeok-Rae*

Joseon Folktales, an anthology compiled by Son Jin-tae, has significance in Korea’s literary history as it is the broadest and most accurate collection of folk tales from the Joseon era. Son Jin-tae divided the 154 folk tales in the book into four categories: ‘Myth and Legend’ (51), ‘Folk and Faith’ (33), ‘Fables and Short Tales’ (47), and ‘Miscellaneous Tales’ (23). But when Son Jin-tae’s categorization of the folk tales is examined more closely, it can be seen that terms such as myth, legend, tale, fable, short story and folktale were used almost interchangeably, which may cause confusion for readers, and the differentiation between the categories is not sufficiently clear. For this reason, I re-categorized the folktales based on the folktale classification system developed by Jo Hi-wung. As a result, the folktales were classified as Mystery Tales (78), Short Tales (44), General Tales (19), Animal and Plant Tales (9), and Formula Tales (4).

The world of myth is featured in the Mystery Tales, and includes genesis myths, giant myths, and deluge myths. In the Mystery Tales, most of the myth stories are about the genesis of humankind, and the

* Yongin Univ

origin of the mountains and streams in Joseon. In the Short Tales, most of the stories depict the vibrant and witty spirit of the Koreans, while the others are exaggeration tales and foolish act tales. The General Tales include legends, stories of the origin of a region, and anecdotes of filial duty. Likewise, Son Jin-tae aimed to present the ethn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Joseon folktales by collecting and recording the tales that showed the audacious imagination of the public, the spirit of humor and satire, and the aspect of folk.

Key Words : *Joseon Folktales*, genesis myths, Son Jin-tae, Jo Hi-wung, folk tales

■ 논문접수 : 2013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3년 3월 20일

■ 게재 확정 : 2013년 4월 4일